

## 教授 役割로서의 學生指導

張 赫 杓  
(釜山大 教育學科 教授)

全人的 人間의 육성이라는 大學教育의 궁극적 目標을 達成하기 위해서 是 教授와 學生의 健全한 相互作用이 이루어져야 한다. 最近 教授의 重要한 役割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學生指導는 종래의 치료적 모형에서 벗어나 보다 효과적이고 새로운 指導方法을 구상할 것이 요청되고 있다.

### I

大學教育의 궁극적 目標은 健全하고 能力 있으며 社會에 기여할 줄 아는 사람을 길러내는 데 있다. 따라서 大學은 教授와 學生이 共同體를 이루는 곳이며 教授는 學問的 權威와 教授學習 活動을 통하여 專門人養成에 노력하며 人間生活의 模範者로서 人格 도야에 影響을 미치는 사람이다. 그리고 學生은 教授와의 相互作用뿐만 아니라 學生相互間의 접촉과 많은 다른 教育的 資料와 情報 등을 통하여 自己를 성장케 하려는 存在이다. 그런데 教授와 學生이 어떠한 관계에 의거 相互作用하는 가에 따라 學生 成長의 方向이 달라질 수 있다. 어떻게 지도를 하느냐 하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學生들이 그 지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도 꼭 중요하다. 그리고 동일한 內容의 것들 지도한다 하더라도 指導方法이나 技術이 미숙했을 경우 소기의 目標 달성이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教授 役割中 學生指導를 重要한 하나의 役割로 보고 이것의 效果的인 수행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간추려 보고자 한다.

大學教授의 役割에는 教授(teaching), 學問研究 또는 學者로서의 역할, 學生指導 내지 人間形成에 의 寄與者의 역할, 社會 奉仕者 내지는 行政參與者로서의 역할 등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모두 하나의 目標을 향한 分擔된 役割이란 점에서 상호 깊은 聯關을 갖고 있으므로 學生指導側面을 논의하는 過程에서 다른 部面의 것도 及及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을 것임을 밝혀 둔다.

### II

大學生은 그 연령의 분포가 대략 19~25세로서 青年後期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그

나이와는 달리 학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그 연령층에 속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發達課業上的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共通的인 많은 문제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實存的 空虛를 느끼는 數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은 이들을 위한 새 指導方法의 구상을 필요로 하게 하고 있다. Frankl은 研究報告에서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大學生의 80%가, 미국 大學生의 60% 정도가 實存的 空虛狀態에 있다고 論述하고 있다. 最近의 한 論文에서는 우리나라 大學生도 40% 정도가 實存的 挫折狀態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 大學生은 스스로 人生의 가치를 발견하고 生의 意味를 찾으면서 自己充足感을 가지고 살아가는 內面的 價値 定立에 問題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學生指導는 對症狀에 관한 지도방법보다는 한결음 앞질러, 이를 예방하고 스스로 再定立이 가능하도록 하는 活動이 있어야 한다.

총체 學生指導의 方向은 問題學生을 찾아 이를 교정·순화하려는 소위 治療的 模型에 의해 指導해 왔던 것이다. 오늘날의 學生問題가 비록 個人的 行動으로 表出된다고 하더라도, 그 個人的 문제도 단정하고 증상이나 原因을 제거하고 性格을 재구성코자 하는 活動만으로는 不充分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人間의 行動이 남과 깊은 關係를 맺고 있을 뿐 아니라 獨自性이나 唯一性의 전지가 어려운 狀況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래에는 個人이 경험하고 달성해야 할 課業을 성실히 이행하는 過程에서 自然的으로 問題가 해소되도록 지도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이것이 소위 發達的 模型이라 하는 것이다.

大學生들에게 知識의 認知的 發達을 강조하면서 文化에 대한 인식, 가치체계의 발달, 自己에 대한 覺醒, 對人關係 技術의 숙달 및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등을 느끼면서 또한 경험을 쌓아가게 하면 健전한 方向으로 성장될 수 있다는 立場이다. 그런데 自身이 작성한다 하더라도 환경적 요인이 이를 어렵게 할 경우 갈등을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보다 적극적인 學生指導의 方案은 教育環境의 構成이란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소위 生態體制模型의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

오늘의 젊은이가 不幸感을 경험하고 방황하며, 갈등상태에 놓이게 되어, 급기야는 方向意識의 定立에 困難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 현상이 그 個體의 문제인 것만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면 學生을 一方的으로 기존 환경에 적응시키려고만 하기보다 그들이 갖고 있는 要求와 그 수준을 고려하여 調整 改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여긴다. 그런데 先行되어야 할 것은 學生 個個人의 要求와 水準이 바로 파악되고 그 適合性의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學生편에서 사리를 분명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충분한 자료와 접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 III

學生指導가 특별히 學習된 高度의 技術 등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또 學生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될 것이라는 印象을 줄 것 같다. 大部分의 교수들에게 있어서 學生들이 요구하고 있는 理想的 面과 교수자신이 당면하고 있는 일들 사이에 엇갈림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를 調和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되면 克服이 가능하리라고 느껴진다. 이를 방해하는 要因이 學生들의 內的 要求에서만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大學行政體制의 官僚化현상 등도 한 原因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특히 大學當局과 教授間 相互理解가 부족할 경우 엉뚱한 오해를 낳게 되고 대학 당국의 지시는 교수들의 능동적인 學生指導를 위축하게 하는 경우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學生指導가 잘 되면 대학분위기 高潮가 가능하리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가르치기 위해서도 지도해야 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役割 遂行의 前提로서 그 役割의 目的과 그것을 위한 기초적인 기능의 습득 내지 理論的인 認知 등이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수가 學生指導와 관련된 理論의 기초적인 것은 理解하고 이를 적용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런데 실제 면에 있어서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 問題가 있다. 大學課程에서 心理學이나 教育學과 관련된 學科目 이수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大學院을 거쳐 大學教授로서 임명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美國이나 英國의 경우 교수로서 自身이 필요하다고 判斷되었을 때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가 開設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청하여 수강하는 기회를 갖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거의 이런 기회를 갖지 않음은 물론 이를 위해 특별히 계획된 세미나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근래 한 조사보고에서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나라 교수 중 학생 개인 면담을 맡고 있는 분 중에서 「相談面接技術」과 關係되는 몇 가지 개념들을 理解하고 있는 사람이 全體의 25% 程度에 지나지 않는다고 함은, 분담된 역할 수행을 위해 특별한 이론의 교육기회가 많지 않았음을 말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理解하고 있는 분들도 대부분 짧은 시간의 세미나 등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음을 보면 이것마저도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相談面接의 技術뿐 아니라 大學生들에 대한 理解가 있어야 한다. 즉 大學生은 發達心理學上 과도기에 있다는 점이나 自己主張과 自己實現의 욕구가 강하다는 점 등에 대한 일들이다. 教授自身이 이런 과정을 체험했음에도 이들의 特性을 무시한 채 대하게 되는 경우는 教授學生間의 人間關係를 조화롭게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한다.

教授와 學生間의 人間關係 形成의 계기는 教授學習活動을 통하여 學生들의 知的 欲求를 충족시켜 줄 때, 그리고 學生들의 장래 진로문제 및 學校生活에서의 適應을 위해 助力이 필요할 때, 그리고 個人生活과 가정생활에 관련된 문제 등의 상의가 필요할 때 마련된다. 그런데 자연스러운 계기를 마련하는 데는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모처럼 어려움을 이야기하기 위해 교수실을 방문하였을 때 교수의 태도가 문제가 된다. 즉 두 사람 사이의 레포(Rapport)형성의 양상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교수측에서는 學生들이 너무 利害打算的이라고 느끼고 있으며, 學生들은 教授에 대해 權威的이며 眞實性이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다. 대화에서 教授는 學生들에게 극히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채 어떤 自身の 所信이나 信念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

우가 많으므로, 內心에 있는 眞實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으로 理解하여 필요 이상의 대화는 억제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따라서 教授도 職業人으로서의 교수라기보다 哲學이 있는 專門役割分擔者로서의 所信이 평상시 生活속에서 그 내용이 흘러 나와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教授와 學生이 서로의 立場을 眞實坦率하게 털어 놓아 진실된 相通의 계기가 마련되어야 이것이 해결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교수는 전문적 학문을 전수하는 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보다 깊은 人間關係 形成을 위한 노력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大學生을 모든 學校 生活을 自律的이고 能動的으로 할 수 있는 時期에 있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그대로 쫓겨갈 수는 없다. 왜냐하면 自身에 의하여 調整이 어려운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全教授가 부적응적 特性을 보이는 學生을 골고루 分擔指導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는 없다. 이는 보다 專門的인 機關에서 맡아 할 것이고, 教授는 全體 學生들에게 눈을 돌려 대범하게 밀고 나가게 되면 부수적인 문제들은 그대로 그 경향에 쏠려 넘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全體 學生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지도 프로그램이 개발 운영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學科別 集團相談을 위한 계획의 수행에서부터 소위 心性開發 訓練이나 감수성 훈련 아니면 「自己成長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전 교수들에게 실시할 수 있는 研修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教授의 學生指導를 위해 重要的 것 중의 하나가 씨름지도이다. 씨름의 교육적 의의에 내하여는 많은 분야에서 논의되어 오고 있다. 그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첫째, 全人教育에 大學教育의 目標을 둔다면 그 목표달성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전공이 다른 여러 分野의 學生들이 서로 交流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自己正體 確立에 도움을 준다고 하겠다. 相互 人格的 接觸을 통하여 自己를 反省하고 남을 理解하게 되는 具體的인 계기가 된다는 면에서이다. 셋째, 社會性과 民主市民으로서의 資質涵養의 기회가 된다. 共同生活을 통하여 자신에게 분담된 役割을 수행함은 물론, 그것이 全體 構成員에 미치는 영향을 자각케 되

고 나아가 相對되는 구성원의 人格을 존중하게 되는 體驗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네째, 餘暇時間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활동한다. 時間의 善用이, 限定된 期間內에서 삶을 영위해야 할 人間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씨클 構成員 相互의 계획수립, 운영과정에서 논의될 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작성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이다. 다섯째, 正規 敎科活動의 活性化의 促進的 機能을 갖게 된다고 하겠다. 습관적으로 學習에 임해 오던 경우 친구들로부터 자극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氣分을 전환함으로써 意欲을 갖게 하는 情緒的인 면에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學校당국에 비쳐진 씨클은 위에서 지적한 바의 의미를 追求함이 꼭 미흡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다른 方向으로 變質되고 있거나 이미 되었거나 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없지 않다고 여기게 되었다. 그러므로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活動의 內容과 그 범위를 조정하려 한다. 그러나 그것이 實效를 거두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自信이 없다. 指導敎授가 있어야 등록이 되고, 活動을 하기 위해서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學校當국의 결재를 얻어야 하며, 지도교수가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그런데 지도교수로 수락한 교수 중에서 대부분은 名目上 등록요식 이상으로 關係하지 않는 경우이고, 그 다음이 支援的 유대관계물, 소수의 교수가 參與的 對話關係를 갖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이것은 學生指導라는 면에서 분명히 問題가 된다. 씨클活動을 敎育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여기더라도, 교수로서 실제 생활에서 참여적 대화의 기회를 마련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 學生들의 빈번한 集會로 時間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대부분의 씨클은 每週 1회 이상의 集會와 放學期間 1주일여의 M.T.(Membership Training) 등을 위한 연수회 등이 開催된다.

교수들이 使命感을 갖고 지도해 달라는 당국

의 부탁으로서가 아니라, 學生들의 씨클活動의 時間과 그 內容 등을 검토하여 時間의 節約은 물론 敎育적 效果를 증대시키기 위한 企劃의 조정으로 교수의 참여 부담을 감소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活動指導에 대한 응분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責任의 限界를 명확하게 해야 할 뿐 아니라 지도교수로서의 自律的이고 能動的인 지도가 가능하도록 재량권을 주어야 할 것 같다.

#### IV

大學敎授의 學生指導 役割이 마치 어제 오늘 強調되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으나, 사실상 敎育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던 시대 이전부터 가르친다는 넓은 의미속에 항상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작금에 와서 이 점을 強調하게 된 것은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先進 外國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그 形態나 內容에 있어서는 다르다. 그것은 國家가 처한 狀況이 다르므로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敎育을 全人的 成長의 촉진제 역할 수행으로서 뿐만 아니라 社會에 기여할 사람을 길러내는 過程으로 보면, 敎授의 役割에는 學生指導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첫째, 교수는 전공학과 중심별로 세미나제를 도입하여 學問과 人間敎育을 병행하는 活動이 필요하다.

둘째, 學生의 理解를 위한 科學的 資料가 지도교수 개인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수요원 양성을 위한 敎育기관에서는 전공의 學生指導, 카운셀링에 대한 敎科를 필수적으로 이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네째, 學生指導는 무엇보다 敎授學生間 信賴가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相互體驗의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